

2021.06.03 (접수 아이디 S2139963022) 제보 이후 샤니 성남공장 관리팀에서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행한 진행 상황에 대한 추가 제보입니다.

제보자는 21.02.20. 샤니 성남공장 내에서 하청업체 무면허 지게차 운전자에게 전치 8주 산업재해를 당한 샤니 성남공장 내용물반 강승구입니다.

경기성남중원경찰서에서는 본 산재 사건을 건설기계 무면허 운전 및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에서 보완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2일 샤니 성남공장 관리팀장 박현호 부장이 가해자와 가해자 소속 하청업체-(주)성주, (주)하이믹스팜과 협의를 하자고 하여 만났으나 가해자와 그 하청업체는 나오지 않았고, 박현호 부장은 제보자에게 일방적으로 병원비 지급 중단을 통보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보자는 이 사건에 대하여 샤니 안전관리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의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추가 조사를 위하여 사법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현호 부장은 법대로 하라고 하였고, 결국 제보자는 노동청과 상담하여 본 산재 사고와 관련된 모든 법인과 담당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박현호 부장은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사전 연락을 하다, 갑자기 수 차례 내용 증명을 보내 전에 없던 휴직계 제출을 요구했고 병원진단서에 근무불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이해하지 못할 문제 제기를 하였고, 무단 결근과 해고를 거론하여 제보자를 압박했습니다. 또한 샤니 지정 병원인 바른마디병원은 사전에 박현호 부장과 원무팀장 간에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주치의가 3주의 진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원무팀장이 공상을 산재 보험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7월7일부로 제보자에게 진료를 못 해주겠다고 했고 더 이상 진단서를 발급 못해준다는 이해하지 못할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제보자는 항의의 글을 병원 게시판에 올렸으나, 샤니 지정병원인 바른마디 병원은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제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산재 보상을 공상으로 하자고 했던 것은 박현호 부장이었고, 언젠가부터 산재보험으로 변경하라고 압박하던 것도 박현호 부장이었습니다. 박현호 부장과 바른마디병원 원무팀장 간에 어떤 교감이 있어 제보자에게 이런 불이익을 주었는가는 경찰에 고발하여 밝혀낼 생각입니다.

결국 제보자는 샤니 지정병원에서 쫓겨나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고,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현호 부장은 제보자가 휴직계와 진단서를 규정대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공언한대로 병원비에 이어 급여까지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감독관이 제보자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보자의 산재 사고를 조사하려 하는데 박현호 부장이 제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하여 합의를 하려 하니 조사를 늦춰 달라고 했고, 감독관님은 박현호 부장과 얘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감독관님의 권유로 박현호 부장과 연락을 했으나 박현호 부장은 본인은 합의할 권한이 없어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박현호 부장은 성남지청 감독관에게는 제보자와는 합의를 한다고 하고, 제보자에게는 자신은 잘 모르겠다는 투로 제보자를 농락했습니다.

제보자는 박현호 부장이 제보자를 대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환멸을 느껴 합의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또 다시 감독관님으로부터 연락이 와 박현호 부장이 또 다시 조사를 늦춰 달라고 하니 박현호 부장과 다시 합의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제보자는 피해 보상은 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는 가해자와 가해업체를 용서하지 않을 생각이었기에 샤니에 한하여 처벌불원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하겠다고만 하였고, 박현호 부장 또한 이를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박현호 부장은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에 사전에 언급이 없었던 고소 취하라는 제목과 내용의 서류를 보내 또 다시 제보자를 농락하였습니다.

제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니와의 원만히 합의를 해 보고자 박현호 부장에게 연락을 하여 사전에 합의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합의서를 왜 보내왔냐고 확인하니 변호사가 했다는 등 자신은 모른다는 등의 이해하지 못 할 핑계로 또다시 제보자를 실망시켰습니다.

결국, 노동청 감독관님이 제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합의하겠다는 박현호 부장의 요청 사항을 한달여 동안 들어 주었으나 박현호 부장은 그것을 시간 끌기에 사용하며 감독관님과 제보자를 농락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SPC 윤리경영 사무국 담당자께서는 샤니 성남공장 관리팀장인 박현호 부장이 이번 산재 사고를 축소, 은폐하여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더 나아가 SPC 그룹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되오니 샤니 성남공장에 대한 이번 추가 제보를 조사하여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2021. 08. 09

제보자 : 강 승구

\* 박현호 부장이 합의 하자고 카톡으로 보내온 자료

1. 박현호 부장은 산재 보상에 대하여 충분한 안내를 한 적도 없으며,  
사고 초기 보건관리자 강양희는 지게차 보험으로 하라고, 다시 산재로 하라고, 또 다시 공상으로 하라고 했으며, 최종적으로 피해자는 샤니의 의견대로 공상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나 샤니 박현호 부장이 다시 산재 보험으로 하라고 압박을 가함.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비 중단과 급여 중단을 한 상태임.
2. 또한, 피해자와 샤니는 고소 취하한다는 합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를 조롱하려고 이런 서류를 보내옴

고소고발 취하 및 처벌불원서

1. 본인은 2021년 2월 20일에 샤니 성남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사고의 피해자로서 주식회사 샤니(이하 "샤니")가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산업재해보상에 대하여 적법하고도 충분한 안내를 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지체 없이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위 1항의 사고와 관련하여 모든 수사기관에 대하여 샤니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및 고발을 취하하고 향후에도 고소 및 고발하지 않고자 하는 바, 본 건과 관련하여 본인으로부터 기 고소·고발 당한 자 내지는 그 외 수사를 받고 있는 자 중 샤니 및 샤니의 임직원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오니 부디 이들에 대해서는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상과 같은 사실을 확인함에 앞서 샤니로부터 어떠한 사실은폐나 조작 없이 있는 그대로 본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 위 본인의 인감증명서

2021. 8. .

위 본인 강 승 구 (인)

연락처 :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 귀중

# 확인서

1. 본인(강승구)은 2021년 2월 20일에 샤니 성남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사고의 피해자로서 주식회사 샤니(이하 "샤니")가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산업재해보상에 대하여 적법하고도 충분한 안내를 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지체 없이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강승구)은 위 1항의 사고와 관련하여 모든 수사기관에 대하여 샤니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및 고발을 취하하고 향후에도 고소 및 고발하지 않고자 하는 바, 본 건과 관련하여 본인으로부터 기 고소·고발 당한 자 내지는 그 외 수사를 받고 있는 자 중 샤니 및 샤니의 임직원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을 확인하며, 해당자들에 대한 선처를 위하여 성남고용노동지청에 '고소·고발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것을 확인합니다.

3. 또한, 본인(강승구)은 향후 샤니 및 그 임직원을 상대로 위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나 분쟁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제기한 분쟁은 취하하고 1항의 사고 사실, 사고 이후의 경과, 본 확인서 내용을 포함한 합의 조건 등 본 건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1항의 사고와 무관한 샤니의 임직원을 포함한 제3자에게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인합니다.

4. 아울러, 이상과 같은 사실을 확인함에 앞서 샤니로부터 어떠한 사실은페나 조작 없이 있는 그대로 본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 위 본인의 인감증명서

2021. 8. .

위 본인 강 승 구 (인)

연락처 :